

‘해골물’ 먹고 깨달아 볼까?

문광부 등 ‘원효 트레일’ 발표 문화·수행 체험 697km 대장정

원효대교는 한강에 놓인 27개 다리 가운데 아름다운 조형미로 손꼽힌다. 원효로와 이어졌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다. 원효로는 일제 강점기 모토마치(元町)라 불리던 곳을 1946년 퇴계로, 을지로, 세종로 등과 함께 개명하면서 원효 대(617-686)의 이름을 빌어 원효로라 이름했다. 원효로와 원효대교 모두 당시의 행정편의에 의해 채택됐을 뿐 아니라 고승으로 불교 대중화에 앞장섰던 원효 대사와는 아무 관계도 없다.

당나라 유학길에 해골 바가지의 물을 마시고는 “마음 밖에 존재하는 것이 없느니 오랑캐에게 배움을 구하지 않겠다(心外無法 胡用無求)”던 원효 대사가 원효로라 이름 붙여 주었다.

이런 가운데 1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관광공사(사장 오지철), 유엔 세계관광기구(UN-WTO ST-EP, 이사장 도영심)가 함께 원효 트레일(trail, 길)을 만든다고 발표했다. 단순히 지목(地目)에 붙는 것이 아닌 원효 대사의 행적을 따라 붙여지는 이름이라니 이제야 진짜 원효의 길을 찾은 듯하다.

원효 트레일은 의상 대사와 함께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던 원효 대사

가 중간에 발길을 돌려 돌아온 여정을 관광 상품화한 명칭이다. 경주를 출발해 경산-문경-여주-수원-평택-괴산-구미를 거쳐 경주로 돌아오는 697km 코스다. 20개 시·군 470여 사람을 지나는 대장정 동안 참가자들은 템플스테이를 하며 참선, 사찰음식 등 불교문화를 경험하게 된다. 수행 트레일 외에도 한국 자생약초와 한방원리를 체험하는 웰빙 트레일, 사찰음식과 차 등을 활용한 웰빙푸드기행, 나무심기와 이산화탄소 줄이기 등 환경운동을 포함한 기후변화방지 환경 대장정 등 트레일 패키지가 개발될 예정이다.

영국의 제프리 초서가 14세기 런던에서 캔터베리 성당으로 순례했던 순례자들의 이야기를 모아 집필한 <캔터베리 이야기>에 버금가는 기행문도 만들고, 이를 다큐멘터리나 영화, 드라마 등으로 가공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단순한 관광상품에 그치지 않고 원효 트레일을 통해 한국 정신문화 원형을 회복하겠다는 비전이다.

이웃 종교에는 이미 10세기 전 원효 트레일과 같은 코스가 있었다. 예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야곱의 순례길은 ‘산티아고 가는 길(Camino de Santiago, 산티아고



“이렇게 닦아서 다 먹으라는 거지?” 겨울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에게 산사체험은 또 다른 세상을 배우고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확인하는 기회다. 김천 직지사(주지 상종)가 1월 15-18일 개최한 ‘참나를 찾아 떠나는 직지사 청소년 동안거 산사체험’에 참가한 학생들이 발우 공양을 하고 있다. 이번 체험 프로그램에는 16명의 중고등학생이 참가해 108배와 명상, 발우공양, 사경, 다도, 사찰예절 등 다양한 산사체험을 했다.

는 야곱의 스페인어로 스페인 서북부 소도시)이라 불린다. 야곱의 길은 그가 예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프랑스 남부 생장피에르프르에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 스페인인 있는 에베리아 반도까지 걸었던 길로 800km에 달한다. 이 길은 10세기 이후 수많은 사제들이 걸어왔고 지금도 해마다 10만여 명이 걷고 있다.

현대에서 ‘길’이라는 이름으로 상품화해 한국불교를 알린 것 중 하나가 최인호의 <길 없는 길>이다. 인간 부처라 불렸던 근대 한국 불교의 증조경 경허 선사를 소설화한 책은 10년간 100만부 이상 팔리며 대중들에게 한국불교를 소개했다. <길 없는 길>을 읽고 불교에 귀의한 이도 많다. <길 없는 길>이 글로 한국불교를 알려왔다면 원효 트레일은 여행을 통해 한국불교를 체험하게 하는 ‘색다른 길’이다.

한국 불교의 새색을 알렸던 원효(元曉)가 1300년이 지난 오늘 다시 세계화된 한국 불교문화의 새색을 열었다. 신년 벽두 발표된 원효 트레일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많은 이들이 길을 걸으며 원효의 가르침을 새기는가에 달렸다. 간결함으로 선의 규칙을 나타냈던 운문 선사는 길(道), 도(道)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가라(去).”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가자 지구에 상생과 평화를...”

불교계 등 종교단체 이스라엘 규탄 시위 잇따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에 전세계적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데, 불교계를 비롯한 개신교 등 국내 각 종교단체들도 이스라엘의 무력시위를 규탄하는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위원장 진관, 이하 인권위)는 1월 13일 조계사에서 이스라엘에 전쟁 종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서한을 이스라엘 대사관에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관 스님과 지도위원 현종 스님(조계종 불학연

구소장) 등 인권위 소속 스님들을 비롯해 원불교 정상덕 교무, 조영건 명예교수(경남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안영민 운동가 등이 참석했다. 인권위는 “생명과 평화를 중시하는 불교도는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이스라엘의 침략적 만행을 좌시할 수 없다”며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침공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최용춘)와 기독교수협협의회(회장 김성은) 등 종교지성인들도 한국이슬람

교중앙회(이사장 손주영) 등 종교단체들과 14일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폭력과 전쟁을 즉각 중지하라’는 제하의 성명서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무차별 공격에 대해 반대하는 세계의 양심 있는 지식인들의 참여를 호소한다”며 “유엔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해 중재자로서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조동섭·노덕현 기자

진흥원, ‘한국불교총람’ 2008년 개정판 발간

한국불교 현황을 집대성한 <한국 불교총람>이 개정·발간됐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은 <한국불교총람> 2008년 개정판을 발행했다고 1월 15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판은 1993년 초판 발간 이후 1998년 개정판에 이은 2차 개정판으로 3년 간의 작업 끝에 1998년 개정판 이후에 변화한 한국불교를

오롯이 담았다. 책에는 160여 한국불교 종단과 사람 1만5000여 곳을 비롯해 불교법인 400여 곳 등 불교단체와 기관을 수록했다. 불교인명에는 2500명 승려와 재가불자를 가나다순으로 나뉘어 출생연도, 학력, 연락처 등을 기재했다. 불서(佛書)는 도서와 논문으로 나뉘어 저자, 출판사, 발행일

등을 수록했다. 특히 불교관련 사건을 개략적으로 정리한 한국불교사 연표도 실었다.

진흥원 출판부 관계자는 “<한국 불교총람>에 수록된 내용을 웹으로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이 가능하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02) 3272-7181

조동섭 기자

법구
오늘은 어제의 생각에서 비롯됐고 현재의 생각은 내일의 삶을 만들어 간다.
(법구경)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능인향당
향·조각·공양물
본사 02)3663-6777
(조계사 뒷문 02-730-6888 혁명역)

법륜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법륜사무소 서안
법륜사무소 서안
법륜사무소 서안

금강선원 뽕잎차
현대 불교 신년 연례 · 초중스님의 뽕잎차 이야기
다들 좋아하고, 고함도, 혁명운동
주스왕에 비해
뽕잎차

청디향
덕유산 청디향 문의 055)941-1083
부처님 제일공양 한국최초 식품과학 연구분석(동국대) 51가지 향기만능

“부처님 말씀 실행하라”
함께가요 섣범진 >23 진제 스님
“마음 잘쓰면 성불해”
선지식을 찾아서 >14 일오 스님
▶9 조폭 저승사자에서 청소년 지킴이로 고행섭 경감
▶19 친불가 대중화위해 대중가요로 댄스 엘리스블루

용문사 운장대 운전으로 모든 액을 소멸하자!

용문사 전경, 용문사 교지(보물 제729호), 용문사 천불전, 목각좌상 및 목각탱(보물 제989호), 용문사 만등불사, 성보박물관, 팔상탱(보물 제1330호), 영산회괘불탱(보물 제1445호)

기축년(윤년)!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운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운장대를 둘러 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자

소백산 용문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천년고찰로서 한국불교 종풍과 호국에 앞장서는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운장대 및 대장전, 목각탱·목각삼존불, 세조의 교지, 괘불탱, 팔상탱 등 약 315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특히 호국을 기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운장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이 땅의 수많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시는 자비롭고 영험하신 부처님 말씀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심각한 경제난과 사회 불안으로 점점 살기가 힘들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 건강을 기원하시는 분, 그리고 집안에 수험생이 있는 분, 새로 이사하는 분들 모두 운장대를 둘러서서 업장소멸 하시고 사업성취, 병자개사, 학업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용문사에서는 5분거리 방생할 수 있는 전용 저수지가 있으며, 삼사순례를 할 수 있는 대승사, 김용사, 보문사, 장안사, 부석사, 청량사, 봉정사, 명봉사 등 전통있는 사찰들이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방생과 삼사순례로 한량없는 공덕 쌓으시고, 운장대를 둘러서서 각자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바라는 바 모든소원을 성취하시길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용문사 오시는 길
버스: 동서울터미널 출발 (06:10-6:30, 30분 간격) 3시간 소요 → 예천 하차 → 택시(용문사) 20분
승용차(서울): ① 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 IC
② 영동고속도로 → 여주 IC → 중부내륙고속도로(충주김천방향) → 점촌·함창 IC
승용차(부산): 경부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 IC
승용차(대구): 중앙고속도로 → 안동 → 예천 IC

삼사순례도
대승사 10분소요, 김용사 30분소요, 보문사 30분소요, 장안사 30분소요, 명봉사 40분소요, 봉정사 50분소요, 부석사 50분소요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주지 벽담 청안 합장
• 용문사에서 5분 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방생전 용 저수지 있음
• 방생처럼 대형 차림 주차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문사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리 391 (우)757-800 / 전화 : (054)655-1011, 011-336-4665 / 전송 : (054)655-8405